

호수비 펼친 박재현

등록 2026.05.26 19:26:00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, 3회말 키움 선두타자 권혁빈의 타구를 KIA 좌익수 박재현이 잡아고 있다. 2026.05.26. 20hwa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